

2021년 녹색현장포럼

부평미군기지 과거, 현재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다

- 일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인천YMCA 지하 1층 세미나실
- 주최 : 인천녹색연합
- 주관 : 정책위원회 / 생태·역사·공간연구소(준)

순서

부평미군기지 일부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고, 잔여 부지도 곧 반환 예정입니다.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원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오랜기간 인천시민들이 밟지 못했던 부평미군기지의 과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옥신 첫 정화사례의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부지 내 나무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향후 공원 조성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발제

과거.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적 지평과 사적(史的) 공간
/ 김현석(인천민속학회 이사)

현재.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 정화 과정과 의미
/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미래. 나무 조사 결과와 공원조성 방향 제안
/ 최진우(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 지정토론 _ 좌장. 변병설(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광경전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 이복임 부평 산곡2동 주민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 류윤기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장

발제1. 부평미군기지의 과거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적 지평과 사적(史的) 공간**

/ 김현석(인천민속학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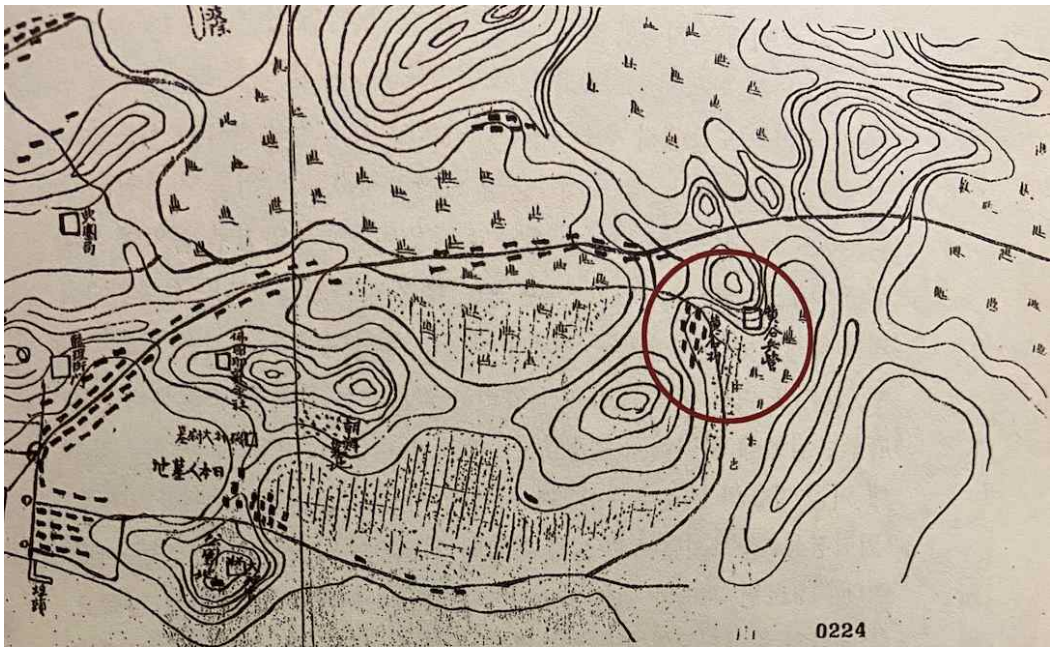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적 지평과 사적(史的) 공간

김현석(인천민속학회 이사)

1. 부평미군기지 전사(前史)

1) 군사적 요충지로서 부평지역

-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구현산에 포대를 설치하였다. 이곳을 서울과 인천을 구분 짓는 하나의 경계선으로 인식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군사상 중요한 요지로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894년, 다나카(田中) 대위를 비롯한 3명의 일본군은 ‘인천경성간도로시찰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쓰쿠바(筑波) 함장 쿠로오카(黒岡帶刀)에 의해 일본 해군대신 사이고(西郷從道)와 해군군령부장 나카무타(中牟田倉之助)에게 제출됐다.
- 다나카 대위 일행은 ‘인천경성간도로시찰보고서’에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길 중 ‘제1로’가 다른 길들에 비해 도로 상태가 가장 낫다고 판단했고, 이 길은 원통이 고개를 넘어가는 ‘신도’와 성현을 넘어가는 ‘구도’로 나뉘어진다고 설명했다. 구도와 신도 모두 구현산을 지나서 위치한 구지리(九芝里)에서 만났다.
- 성현을 잇는 길은 조선시대 경인로가 지나가는 길이며, 이 길의 원형은 현재 무네미로 448번길 일대를 거쳐 군부대 정문에서 이어진 대로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훗날 이 도로가 신작로의 형태로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식재된 수목의 형태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성현의 동북쪽 군부대 내에는 조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지하시설이 확인된다. 이곳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군사시설로 활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설물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한 대상이다.
- 현재 일신동과 구산동 일대에는 적어도 1940년대 이후에 일본군이 운영하던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이 위치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평분창의 정확한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나, 1942년 4월 15일 가토리 마치(香取町)에 설치된 이후 병기, 전차, 자동차 등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부평지역은 이미 청일전쟁 전후부터 일본군에 의해 군사적 요지로 주목받으며 활용되기 시작했고, 최근 산록 등에서 일본군의 군사 시설이 발견되어 보고되고 있다. 현 군부대 주둔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정밀 조사가 필요한 공간이다.



『인천경성간도로시찰보고서』에 수록된 '황곡'과 '황곡병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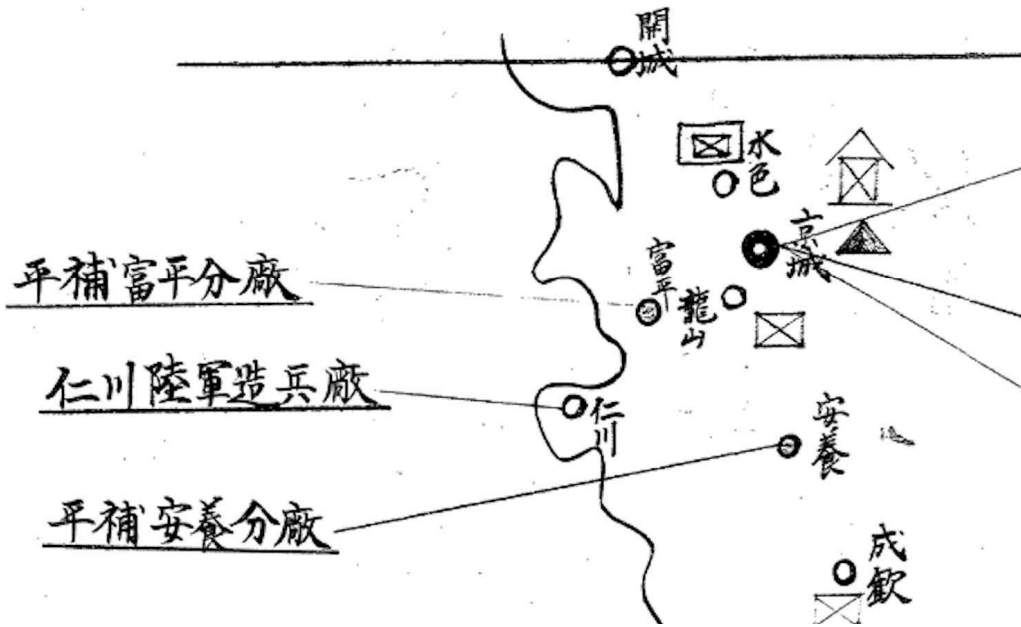
『인천경성간도로시찰보고서』에 수록된 지도 속의 '석암리'

〈인천경성간도로시찰보고서 수록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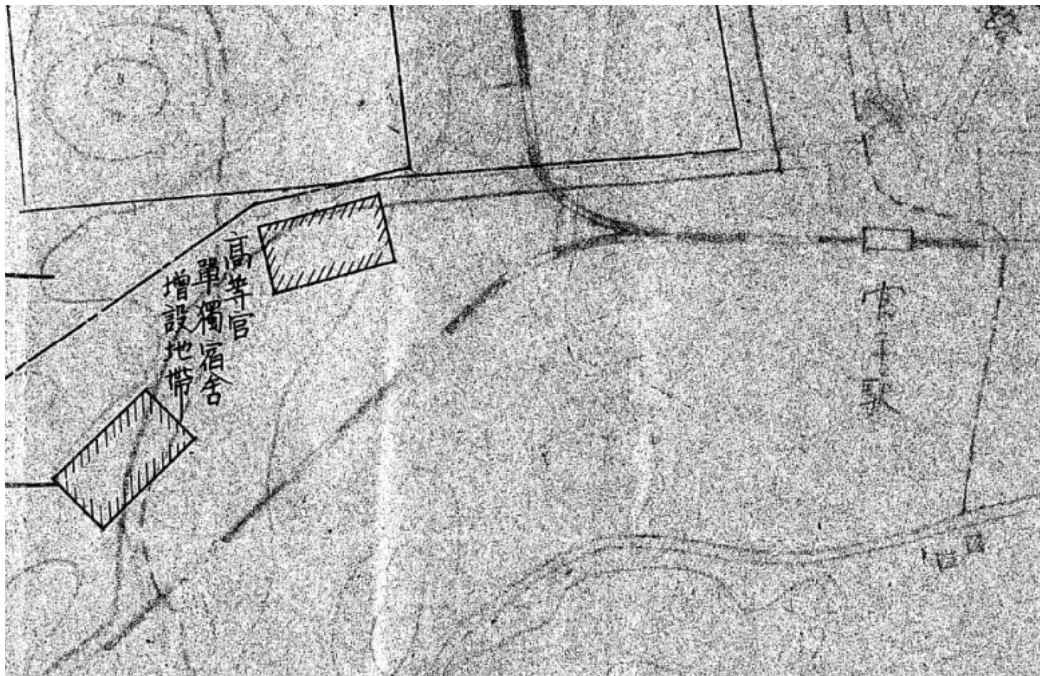
2) 부평연습장의 운용

*부평연습장에 대해서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인천육군조병창은 그 전에 일본군이 사용해 오던 부평연습장 부지를 중심으로 건설된 군사시설이다.
- 1923년, 일본군은 용산에 주둔 중인 부대의 훈련을 위해 ‘부평 부근 소연습장’을 매수했다. ‘연습장’은 일본 육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 훈련장이다.
- 일본군의 육군 조병창이 부평에 건설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부평연습장의 존재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군용지로 확보된 토지이기 때문에 민유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동안 군부대가 관리해 온 구역일 뿐 아니라 관련 시설들도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부평연습장은 1939년, 인천육군조병창 건설을 위해 제20사단 경리부 관할에서 일본 육군조병창에 이관된다. 당시 이관된 부지는 약 72만 8천 평이다. 인천육군조병창 초기 계획 부지의 약 62%에 해당한다. 연습장 내에 있던 건조물 역시 이때 인천육군조병창에 이관된다.
- 그런데, 일본군은 이미 1910년대부터 부평지역에서 훈련을 전개해 온다. 부평지역이 이미 연습장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군사훈련장으로 활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료-1) 보병 제78연대에서는 15일부터 2일간 경인선 부평 부근에서 사격 연습을 거행중인데 제19사단 참모장 오카모토(岡本) 대좌는 16일에 차(此)를 검열하기 위하여 부평에 출장하였더라. (매일신보, 1916년 9월 17일).
- (자료-2) 소위 육군기동연습을 27일부터 내월(來月) 5일까지 부평광야를 중심으로 하여 열리는 동시 내월 3일에는 약 5천 명의 군인이 인천에서 일박하게 됨으로 일본사람의 집으로는 도저히 다 채우지 못한다. 하여 조선사람의 완만한 집은 모두 몇 명씩 명령덕으로 채우게 되어 일부 민간에 불평이 적지 않으며 또 평화로운 인천으로 하여금 전쟁터를 이루게 할 터임으로 더욱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데 그와 동시에 상공에 비행기도 뜬다더라. (『동아일보』, 1923년 10월 30일).
- (자료-3) 30일 정오부터 10월 2일 정오에 이르기까지 용산 78연대에서는 경인선 부평역 사격장에서 실탄이 튄 각종 전구(戰具)를 사용하며 연습하리라는데 일반 주민과 통행인은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하며 당일은 소형 탱크와 경전차 등이 참가키로 되어 일대 장관을 이루리라 한다. (『조선일보』, 1936년 10월 2일).
- 반환되는 캠프마켓 부지는 이미 100여 년 이전부터 일본군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곳이다. 일본군의 군사 훈련으로 이동로 주변의 민가나 훈련장 일대의 주민들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게다가 훈련장 내에서의 경작이나 출입이 금지되었을 것이므로 한 세기가 넘도록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천육군조병창 및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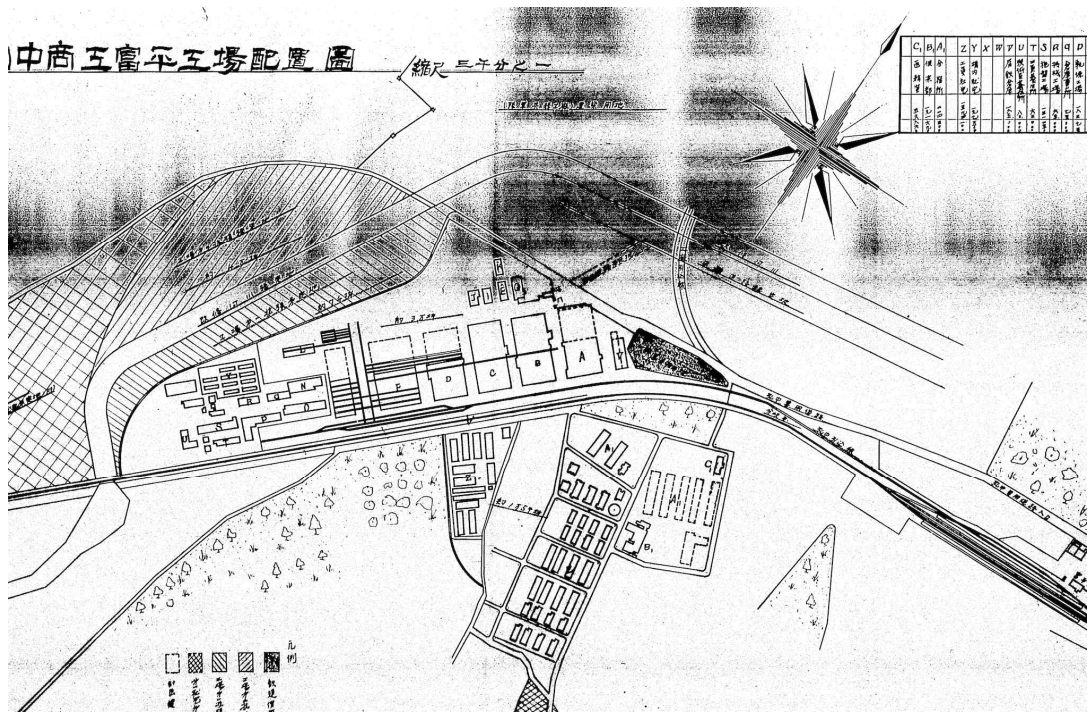


<인천육군조병창 일대 시설 배치도>

2. 공장과 인천육군조병창의 등장

1) 공장 건설과 토지 구획

- 1930년대 부평지역에는 군사시설과 공장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일제강점기 부평지역의 공장 시설은 미쓰비시제강 인천제작소, 조선베어링 공장, 도쿄자동차공업, 디젤자동차공업, 부평요업, 일본고주과공업, 국산자동차공업 등이 있었다.
- 각 공장들은 직원들을 위해 인근에 사택을 조성하기도 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곳이 미쓰비시 사택이다. 미쓰비시제강 인천제작소는 경영난에 휩싸인 히로나카상공을 인수해 설립된 회사다. 히로나카상공은 1938년 5월 부지를 선정해 공장을 건설했고, 1942년 미쓰비시에 매각됐다.
- 히로나카상공의 직원은 1,200여 명에 달했다. 히로나카상공에는 구내사택(構內社宅)과 공원사택(工員社宅)이 있었으며, 공원사택이 지금의 미쓰비시사택이고, 구내사택은 부평공원 내에 있었다. 히로나카상공은 당초 직원들의 사택을 신촌과 동수역 일대까지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에는 부평역에서 갈라져 나온 철도가 차량목 공장 앞 인근에서 연결돼 있었으며 부평역 북쪽으로 히로나카상공 전용도로도 건설됐다. 도요코인 호텔 앞, 즉 ‘부평역 뒷길’에 해당한다. 히로나카상공은 당초 신촌과 동수역 인근으로 사택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 1941년에는 지금의 부평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昭和土地區劃定理事業)이 진행됐다. ‘상공업자의 가옥 건축 부지’ 조성을 위치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4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광복 때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1970년도에 부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되어 완료되었다.
-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된 이유는 경인시가지계획이나 인천시가지계획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평공업용지구역’이나 ‘육군공창용 건축물’, ‘현업중인 육군용지’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시설들이 확장될 것을 예상하여 이곳에 상업지구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 부개역 인근에는 부평송신소, 즉 경성무선전신국 단파송신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는 역 조성과 아파트 건설로 사라졌다. 김포비행장과 연결된 송신 구역이었다.
- 1930년대 부평은 각종 공장의 건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인천육군조병창이다. 공장이 건설되면서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이주, 혹은 강제동원되어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부평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했다.



<히로나카상공 공장 배치도>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2) 인천육군조병창의 조성

- 인천육군조병창의 초기 계획 부지는 약 117만 평이다. 현재 수치에 대입해 환산하면 약 386만 7,000㎡에 달한다.
- 일본군은 인천육군조병창을 건설하면서 굴포천을 정비해 공장의 경계로 삼았다.
- 인천육군조병창은 군수무기를 생산하던 군수공장으로, 1939년부터 ‘조선공창(朝鮮工廠)’으로 기획되었으며 1940년 12월 2일에 조선군에 편제된 후, 1941년 5월 5일 개창됐다.
- 인천육군조병창은 조병창 본부, 제1제조소, 평양제조소, 경성감독반, 부산감독반, 성진감독반으로 구성됐다. 그 중 본부와 제1제조소가 부평에 있었다.

명칭	당시 위치
본부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
제1제조소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
평양제조소	평안남도 평양부
경성감독반	경성부 광화문동 경기도청 내
부산감독반	경상남도 부산부 수정가(水晶街)
성진감독반	함경북도 성진부 쌍포정(雙浦町) 일본고주과공업 성진공장 내

- 1942년 4월 15일에는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이 건설됐다. 인천육군조병창은 소총과 총검 등을 만들었고,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은 병기, 전차, 자동차 등을 생산했다.

명칭	당시 위치
본창本廠	평양부 평천리
부평분창	경기도 인천부 부평군 향취정
검이포분창	황해도 황주군 송리면
진남포상주반	평안남도 진남포부 부두
원산상주반	함경남도 덕원군 북성면
부산현장사무소	부산부 청학동 330

- 인천육군조병창 내에서 핵심이 되는 건물은 조병창 본부, 병원 및 사무실, 생산 공장, 기숙사 등이다. 기숙사는 2층 건물로, 아오바료(靑葉寮)라고 불렸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연관되어 있다.
- 인천육군조병창이 조성될 당시는 이미 국가총동원법이 제정(1938년 4월)된 이후이며, ‘근로보국’이란 구호 아래 각 지역 주민들이 공장 건설 단계부터 현장에 투입돼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특히, 1944년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이 발표된 직후에는 인천소학교등여학교 등을 포함한 남녀 학생들까지 공장에 동원되어 군수물자를 생산하였다. 그 중 남학생들은 징병되어 전장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3. 애스컴 시티의 건설과 기지촌의 등장

1) 애스컴 시티(ASCOM CITY)의 건설

- 애스컴 시티, 혹은 캠프 애스컴(Camp ASCOM)은 부평지역에 있던 미군기지이다.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이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을 점령해 조성하였다.
- 애스컴 시티는 초기에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의 관할 아래 있었으며, 병기기지창(OBD: Ordnance Base Depot)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의 애스컴 시티는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서 공수해 온 군수물자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 미군은 인천육군조병창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들도 접수해 병참기지로 이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 1955년 애스컴 시티 지역사령부(ASCOM CITY AREA COMMAND)가 설치됐으며, 제55병참창(55th Quartermaster Depot)이 이곳으로 이동해 왔다. 55병참창에 소속된 부대 중 제130 병참중대가 베이커리(Bakery) 임무를 맡고 있었다.
- 한국전쟁 중 캠프 하이에스 구역에 반공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으며, 미 제44공병대에서 작업을 하며 포로 생활을 하였다.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의 반공포로들이 석방되었으나 부평반공포로수용소는 대통령의 석방 명령을 불이행하여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1954년에는 애스컴 시티에 중공군 임시 포로 수용소가 설치됐다. 14,400여 명의 포로들이 문산에서 부평으로 이송되었고, 1월 21일 인천항을 통해 대만으로 이동하였다.
- 애스컴 시티에는 6의무 보급창(6th Medical Depot), 121후송병원(121st Medical Evacuation Hospital), 21재무중대(21st Finance Company), 181통신중대(181st Signal Co), 728헌병대 D중대(Company D, 728th Military Police Battalion), 74병기대대(74th Ordnance Bn), 44공병대(44th Engineer Bn), 37정비대대(37th Maintenance Co), 512중장비중대(512th Heavy Equipment Maintenance Co), 70수송대대(70th Transportation Bn)(트럭) 등 다수의 부대들이 거쳐 갔다. 이들의 부대 역사(Unit history)는 애스컴 시티의 역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애스컴 시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공간은 미 제382 위수병원(382d Station Hospital)이다. 제227 위수병원에 이어 1946년에 문을 열었다. 400병상 규모였으며, 인천육군조병창 병원의 시설들, 즉 사무실, 치과시설, 엑스선 장비 등을 인수하여 활용하였다. 제382 위수병원은 대한민국 육군 제1병원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건군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애스컴 시티 및 부평지역에는 이 외에도 간호장교 교육대, 병기학교, 육군위생재료창 등이 건설되어 건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 기지촌의 등장과 재조명

-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과 인근 공장 주변은 광복 후 부평미군기지의 정착을 거치며 기지촌으로 변화해 갔다. 부평지역에는 대략 5개 지역에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다다구미, 백마장, 삼릉, 신촌, 관동주다.
- 다다구미는 북인천우체국 뒤편에 위치해 있었고, 백마장은 산곡동 영단주택에 해당한다. 산곡동 영단주택은 인천육군조병창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공간이다. 신촌은 일제강점기 부평에 공장들이 건설되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여든 외지인들이 모여 만든 ‘새마을’ 이고, 부평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지촌이었다. 관동조는 간토구미(關東組) 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산곡2동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삼릉은 미쓰비시 사택 부지에 해당한다.
- 최근 미군의 재배치가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기지촌에 대한 재조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동두천의 ‘택거리 마을박물관 상제리에’ 다. 2019년 11월 30일에 문을 열었으며, ‘황금스텔’ 이란 미군 클럽 건물을 활용해 마을박물관으로 만들었다. 박물관이 위치한 곳은 광암리란 곳으로 동두천의 대표적인 기지촌 중 한 곳이다. 현재는 캠프 호비가 위치해 있다.
- 2015년, 기지촌 상권이 사라진 광암리 인근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섰으며,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박물관 건설이 추진되었다. 택거리 마을박물관은 ‘기지촌의 역사를 박물관에 담다!’란 주제를 내걸고 기지촌 시절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운영중이다.
- 같은 동두천의 보산리는 동두천 최대의 기지촌이다.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 조성된 이곳은 최근 ‘캠프 보산리’란 이름을 부여해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아직 운영중인 인근의 양키시장도 기지촌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재생을 꾀하고 있다.
- 의정부의 ‘빼벌’은 캠프 스탠리 후문에 위치한 기지촌이다. 미군의 이동으로 클럽 등 다수의 건물들이 폐쇄된 채 남아 있던 곳이다. 최근 이곳은 기지촌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 군산아메리카타운(A-Town)은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3마일(4.8km) 떨어져 있는 기지촌이다. 이곳은 2008년 국제문화마을(International Culture Ville)을 출범시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파주 장과리는 최근 접경지역이 주목되는 것과 맞물려 개인들이 정착해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데 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며, 캠프 험프리 주변의 평택 안정리 기지촌은 특화구역으로 변모해 가는 중이다.
- 기지촌은 미군기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온 곳이기도 하지만, 생활사, 인권, 평화, 주민자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미군기지와 더불어서 주목할 만한 공간이다.



<턱거리 마을박물관>



***의정부 배벌마을에서 펼쳐지는 거리극 일반시민참여자 대모집!**
 <배벌은 공공공> 프로젝트에서 오는 7월 10일 미군기지 캠프스탠리와 집경한 마을 의정부 배벌에서 지역커뮤니티예술공간 <배벌보관소>를 열어 관석린 연출가, 유지선 더 통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거리극을 준비합니다! 거리극에 도전하여 사자와 함께 마을의 복을 기원하고 경계 넘기 놀이에 함께 오르막 거리 일반시민 모여주세요~~

<배벌 공연극>

<참고문헌>

- 도시마을생활사(주안동), 인천광역시 남구, 2017.
- 김현석,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인천광역시 부평구), 선인, 2019.
-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부평역사박물관, 2020.

발제2. 부평미군기지의 현재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 정화 과정과 의미

/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정화 과정과 의미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부평 미군기지 토양·지하수 복합오염 확인



-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 2008년 12월, 부평구,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 전문가, 환경단체 자문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3개 지점 중 13지점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 구리 1지점, 납 5개지점, 비소 1개지점, 아연 6개지점, 불소 2개지점 기준초과
- 2011년 5월 19일 퇴역주한미군 병사 스티븐하우스 증언
; 경북 칠곡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 250여통 드럼 매립 증언
- 2011년 5월 23일, 주한미군 보도자료
; 1978년 캠프캐럴에서 특정 물질이 매몰됐고,
드럼통과 주변의 40~60ton 가량의 흙을 파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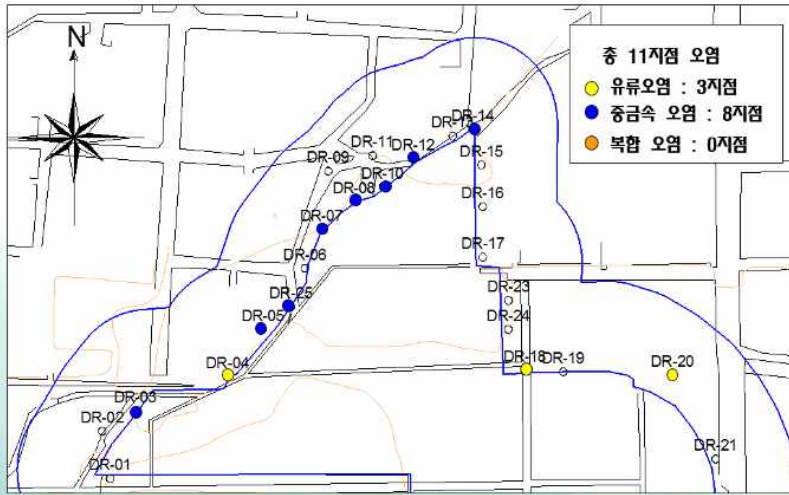
-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 2008년 12월, 부평구,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 **전문가, 환경단체 자문**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3개 지점 중 13지점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
 구리 1지점, 납 5개지점, 비소 1개지점, 아연 6개지점, 불소 2개지점 기준초과
- 2011년 5월 19일 퇴역주한미군 병사 스티븐하우스 증언
 ; 경북 칠곡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염제(에이전트 오렌지) 250여통 드럼 매립 증언
- 2011년 5월 23일, 주한미군 보도자료
 ; 1978년 캠프캐럴에서 특정 물질이 매몰됐고,
 드럼통과 주변의 **40~60ton 가량의 흙을 파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발표

○ 2012년, 부평구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민관공동조사단**

■ 조사 개요

용역명	부평 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위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캠프마켓 주변 부평1,3동, 산곡1,2,3,4동
목적	토양오염조사 및 고염제 관련 조사 등 환경기초조사를 통하여 오염현황 파악 및 주민 건강과 안녕 도모
사업기간	2012. 1. 9 ~ 2012. 8. 31(8개월)
사업내용	- 주변지역 고염제 관련물질 토양오염현황조사 - 부영공원 토양오염조사(정확대상물질, 오염계연범위 파악) - DRMO 주변지역 토양오염현황조사
시행처/수행기관	부평구청, 민관공동조사단 / 한국농어촌공사

DRMO 주변지역 분석결과



1차 다이옥신 현장 조사

시료채취 위치도



세부 조사내용	수량	단위
1차 다이옥신 조사	104	점
- 부영공원 지역	53	점
표토	9	점
심토	44	점
- 캠프마켓 주변지역	51	점
표토	16	점
심토	35	점

- 1차 다이옥신 현장조사
 - Screen test 개념의 생태독성 시험(정성분석)
- 조사지점 선정 기준
 - ▶ 살포 예상지역
 - 표토 위주 조사, 부지 경계 지역 중심
 - ▶ 매립 예상지역
 - 심토 위주 조사, 교란흔적이 있는 심부 층
 - 토양오염물질 우심지역

2차 현장 조사 결과(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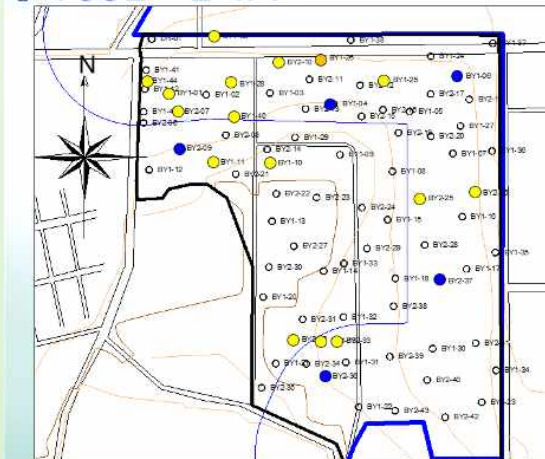


세부 조사내용	수량	단위
2차 현장조사(표토)	14	지점
- 부영공원 지역	3	지점
- 캠프마켓 주변지역	11	지점

구분	농도	비고
다이옥신	평균(표토)	5.985 pg-TEQ/g
	최대 (DR-14-B)	55.748 pg-TEQ/g
	전국 평균 상회	5지점
고염제 관련	검출한계 미만	제조제 및 분해부산물

“09년 측정량 실태조사 결과”
- 전국 평균 : 2.280
- 인천기계공단 : 14.192

부영공원 오염 위치도



총 21지점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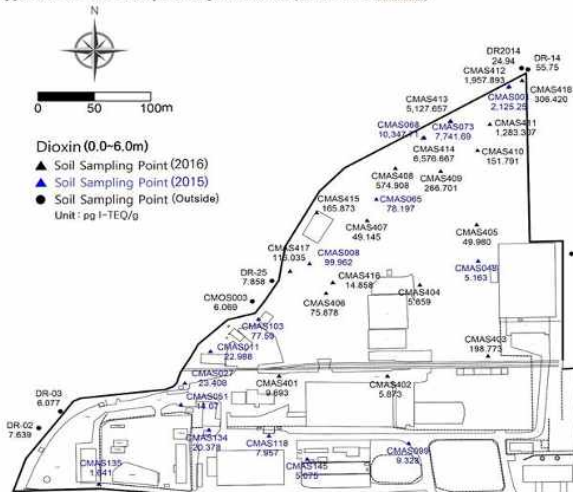
- 유류오염 : 15지점
- 중금속 오염 : 5지점
- 복합 오염 : 1지점

- 2013년, 인천지역사회 요청으로 국방부, 부영공원 정밀조사 실시하고 2014년 정화 시작
- 2016년, 부평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 2017년,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정보공개 청구. 환경부는 SOFA 하위법령(절차 부속서)의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는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 인천녹색연합,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에서 정보비공개취소행정소송 제기
- 2017년 10월, 이례적으로 환경부가 반환협상중인 부평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조사 자료를 일부 공개

캠프마켓 위치도



별지 5 - 토양 시료 분석 결과 (A구역 - 다이옥신류)
Appendix 5 - Soil Sample Analysis Results (Parcel A - Dioxins)



공개 내용 확인 결과,

- 토양에서는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발견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
- 다이옥신류는 총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조사지점의 토양시료에서
1,000 pg-TEQ/g을 초과. 최고농도는 10,347 pg-TEQ/g로 나타남.
- 유류의 경우 석유계총탄화수소의 최고농도는 24,904 mg/kg(1지역기준500),
벤젠 최고농도는 1.6 mg/kg, 크실렌 최고농도는 18.0 mg/kg로 나타남.
- 중금속은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확인
납 최고농도는 51,141.6 mg/kg(1지역기준200),
구리 최고농도는 29,234.2 mg/kg(1지역기준150)로 나타남

1.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1) 2012년 공여구역주변지역 조사 당시,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2)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RMO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 부평구 각 1인
인천시민단체 2인, 주민 2인, 전문가 5인, 총13명으로 민관협의회 구성

- 오염현황 : 중금속,유류 144,806m³, 다이옥신류 9,628m³
- 국방부는 100pg-TEQ/g 수치는 안전하다는 입장 유지
- 해외 조치 기준
 스웨덴(민감한 기준) 20pg-TEQ/g, 미국(주거지) 50pg-TEQ/g
 독일(어린이놀이터) 100pg-TEQ/g, 독일(주거지) 1,000pg-TEQ/g

- 정화방식 : 열봉방식
 (스팀과 가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토양으로부터 탈착하여 정화)



○ 파일럿테스트 결과

(단위 : pg-TEQ/g)

구분	평균	1시료	2시료	3시료	4시료	5시료	6시료	7시료	8시료	9시료
정화전	5,540	5,447	3,548	6,000	5,782	11,468	5,816	247	5,421	6,133
정화후	3.6	0.8	1.3	3.2	9.6	2.0	1.6	4.3	5.9	3.8

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 2011년 조례제정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01-09>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공원녹지분과/역사문화분과/환경분과 로 구성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장/환경국장/부평구 부구청장(당연직) 3명, 인천광역시의
회 시의원 3명(당연직), 분야별 전문가 15명, 주민대표 5명, 시민단체 5명 등 참여

시민사회활동이 토대, 계기로 가능했던 민관협력

-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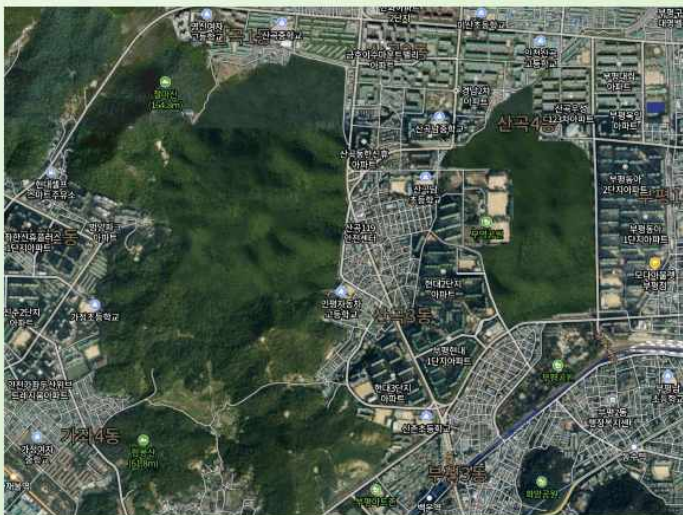
2. 다이옥신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2018년 11월,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물질’ 에 ‘다이옥신’ 포함

한계와 향후 과제

- 1) 토양오염에 대한 주한미군 책임
- 2) 반환 예정인 부지 오염조사 결과
- 3)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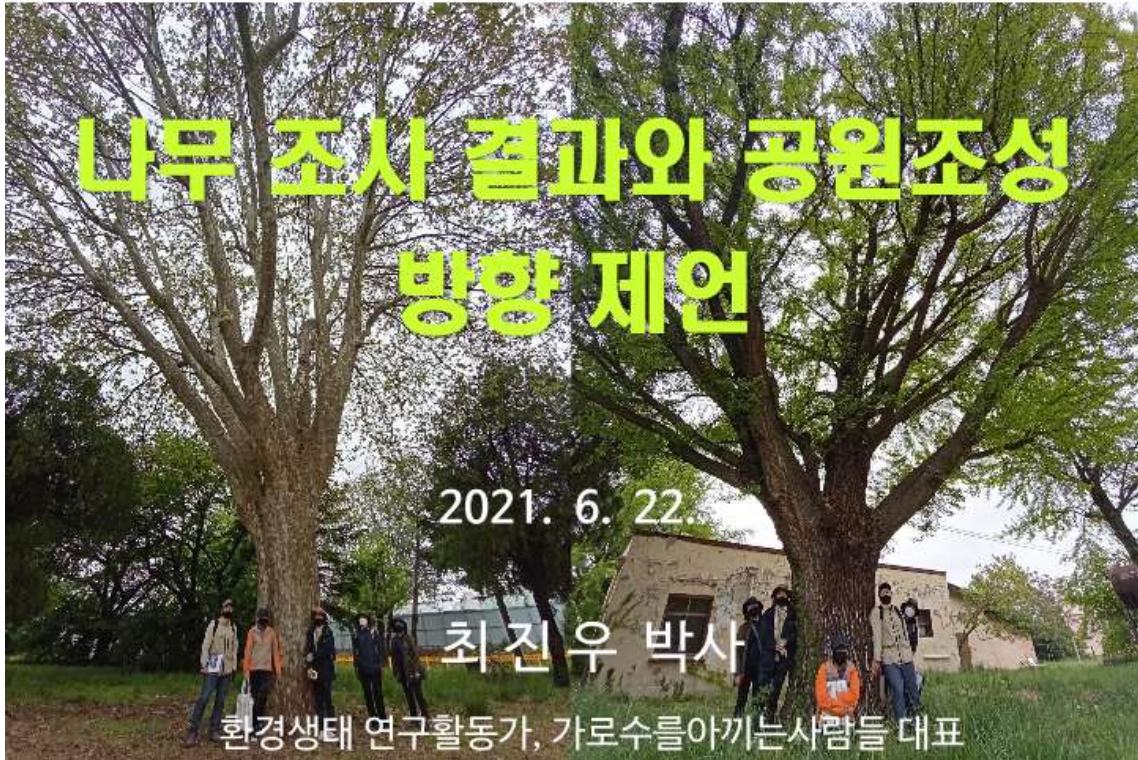
- 주변 공원 연계성
- 철도 활용 방안과 도시계획
- 산곡천 복원
- 상부공원 활용을 위한 도로 지하화

발제3. 부평미군기지의 미래

나무 조사 결과와 공원 조성 방향 제안

/ 최진우(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부평미군기지 과거, 현재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다



〈나무가 들려주는 인천 이야기〉



나무를 빼놓고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

나무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무가 지켜보았을 인천의 역사와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 성찰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나무는 개항시기(1884년 추정) 대한제국 시절 응봉산 각국공원(현 자유공원)이 조성될 당시 식재된 우리나라 최초의 플라타너스로 현재 인천시 보호수로 지정

자유공원 플라타너스의 높이는 30.5m

그런데, 부평 캠프마켓 플라타너스의 높이는 32m

캠프마켓 전경 _연합뉴스 2020년



〈부평미군기지 수목 조사〉 개요

부평미군기지 수목 조사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도심 속 반환된 부평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대한 정화 방법,
역사문화적 건물에 대한 존치 여부 등 정도만 논의가 되고,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논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조병창으로, 미군기지로 사용되다 드디어 시민들의 땅으로 반환된
그 곳에서 오랜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나무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원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5월 1일(토) 오전9시~오후6시

□ 장소 : 부평미군기지 B구역, 부영공원

□ 조사내용

- 수목 종류, 둘레, 수고 측정과 기록
- 사진 기록

□ 역할과 인원

(총괄 : 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조경학 박사)

- 측정 2인
- 기록 1인
- 사진 기록 2인

➤ 조사시기

- 4월 6일 B구역 예비답사
- 4월30일 B구역 현장조사
- 5월25일 D구역 현장답사
- 6월22일 B구역 현장조사

➤ 조사원: 인천녹색연합 회원 5명

최진우(총괄), 김복순, 이미남, 이미화, 윤수진

➤ 조사방법(B구역)

- 11개 장소 구획
- 교목 전수조사, 특징 관목 조사
- 수고, 흉고직경, 수관폭 측정
- 생육상태 확인
- 사진촬영 및 특이사항 기록

B구역 수목 현장조사



10

B구역 수목 조사결과

수종명	주수	비율(%)
은행나무	30	12.8
아까시나무	26	11.1
곰솔	22	9.4
은사시나무	19	8.1
양버즘나무	15	6.4
리기다소나무	14	6.0
가층나무	13	5.6
촉백나무	13	5.6
수수꽃다리	10	4.3
노무라단풍	9	3.8
중국단풍	9	3.8
오동나무	8	3.4
노간주나무	5	2.1
귀룽나무	4	1.7
목련	4	1.7
낙엽송	3	1.3
단풍나무	3	1.3
벗나무	6	2.6
사철나무	3	1.3
향나무	3	1.3
물오리나무	2	0.9
복사나무	2	0.9
회화나무	2	0.9
느티나무	1	0.4
능수버들	1	0.4
독일가문비	1	0.4
무궁화	1	0.4
황나무	1	0.4
서양촉백나무	1	0.4
용버들	1	0.4
갯나무	1	0.4
전나무	1	0.4

➤ 총 32종 234주 조사

(토양정화사업 중 제거된 수목 포함)

➤ 교목 주요종: 은행나무 30주, 아까시나무 26주, 곰솔 22주, 은사시나무 19주, 양버즘나무 15주, 리기다소나무 14주, 가층나무 13주

➤ 관목 주요종: 수수꽃다리 10주, 사철나무 3주, 무궁화 등

➤ 가장 큰 나무: 양버즘나무 수고 32m, 흉고직경 127cm, 수관폭 24m

11

〈중요한 나무들〉

1. 원형 보전이 필요한 나무들
2. 가급적 보전 또는 이식·재활용이 필요한 나무들
3. 장소콘텐츠 기록 및 활용이 필요한 나무들

12

1. 원형 보전이 필요한 나무들 B구역 18주

- | | |
|----------------------------|-------------------------|
| ▪ 진입로 중앙녹지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2주 | ▪ 커뮤니티클럽(1583) 주변 곰솔 1주 |
| ▪ 사무실(1780) 전면부 은행나무 2주 | ▪ 사무실(1531) 주변 곰솔 1주 |
| ▪ 사무실(1780) 측면부 은행나무 1주 | ▪ 사무실(1531) 전면부 능수버들 1주 |
| ▪ 사병숙소(1776) 전면부 은행나무 2주 | ▪ 야구장 남측 양버즘나무 3주 |
| ▪ 진입로 가로수길 양버즘나무 2주 | ▪ 야구장 북측 양버즘나무 3주 |



진입로 중앙녹지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2주



수고 32m 흉고직경 127cm, 수고 30m 흉고직경 105cm.
 인천에서 가장 키가 큰 플라타너스 (자유공원 30.5m)
 웅장미가 있는 수형 및 경관, 풍성한 열매, 뚜렷한 수피
 도시 강전지에 시달리는 '달밭기루수'와 비교

1945년 부평미군기지, 양버즘나무



1945년 11월 부평미군기지 초창기 시절 미군부대 헌병. [부평역사박물관]

사무실(1780) 전면부 은행나무 2주



16

조병창 전면부 은행나무 (1948년 사진)



17

사병숙소(1776) 전면부 은행나무 2주



18

진입로 가로수길 양버즘나무 2주



19

커뮤니티클럽(1583) 주변 곰솔 1주



20

사무실(1531) 주변 곰솔 1주



21

사무실(1531) 전면부 능수버들 1주



22

야구장 남측 양버즘나무 3주



23

야구장 북측 양버즘나무 3주



24

B-D구역 경계부 이태리포플러 큰나무 3주



25

D구역 조병창 향나무 7주, 주목 2주



26

D구역 양버즘나무 큰나무 여러 그루



2. 가급적 보전 또는 이식·재활용이 필요한 나무들

〈B구역〉

- 진입로 중앙녹지 왕벚나무 3주
- 진입로 중앙녹지 전나무 1주
- 진입로 중앙녹지 사철나무 2주
- 사무실(1780) 진입로 용버들 1주
- 사무실(1780) 후면부 무궁화 1주
- 사병숙소(1776) 진입부 벚나무 1주
- 진입로 가로수길 은행나무
- 진입로 가로수길 수수꽃다리 1주
- 커뮤니티클럽(1583) 주변 목련 3주

〈D구역〉

- 거대하게 자란 라일락 2주
- 사철나무 1주
- 눈향나무
- 구상나무 (연료탱크 앞)

28

진입로 중앙녹지 왕벚나무 3주



29

진입로 중앙녹지 전나무 1주



30

사무실(1780) 진입로 용버들

사병숙소(1776) 진입부 뱀나무



사무실(1780) 후면부 무궁화 1주



32

진입로 가로수길 은행나무



33

커뮤니티클럽(1583) 주변 목련 3주



34

D구역 거대하게 자란 라일락 2주



D구역 거대하게 자란 사철나무 1주



36

D구역 눈향나무



37

D구역 구상나무(연료탱크)



38

3. 장소콘텐츠 기록 및 활용이 필요한 나무들

- 사무실(1780) 진입로 귀룽나무 1주
- 사무실(1780) 전면부 벚나무 1주
- 사무실(1780) 건물 주변 가충나무, 아까시나무, 노무라단풍
- 사무실(1780) 건물 안에 끈질기게 살아 온 오동나무 1주
- 커뮤니티클럽(1580) 전면부의 커다란 아까시나무들
- 지붕 위에서 자라는 은사시나무(S1595)
- 수영장 울타리에 끼어 자라는 중국단풍
- 철조망과 연리지가 된 고사목 (제거)
- D구역 입구 양버들 1주, 수고 25m 네 갈래 수형

39

사무실(1780) 진입로 귀룽나무 1주



40

사무실(1780) 전면부 벚나무 1주



41

사무실(1780) 건물 주변 가중나무, 아까시나무, 노무라단풍



42

사무실(1780) 건물 안에 끈질기게 살아 온 오동나무 1주



43

커뮤니티클럽 (1580) 전면부의 커다란 아까시나무들



44

수영장 울타리에 끼어 자라는 중국단풍



45

지붕 위에서 자라는 은사시나무(S1595)



철조망과 연리지가 된 고사목 (제거)



〈공원조성 방향 제언〉

1.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나무의 보전과 활용
2. 기후위기 대응 및 폭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3.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물서식처 조성 및 연계

48

1.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나무의 보전과 활용

-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이태리포플러 큰나무의 원형 보전으로 생태 문화적 기반의 랜드마크 형성
 -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온전한 수형을 갖춘 아름드리 수목 경관 보전
- 장소콘테츠 맥락이 담긴 특별한 나무를 최대한 보전하고 문화적 해석을 가미하여 장소성 상징화 구현
 - 은행나무, 주목, 향나무, 벚나무, 오동나무, 전나무, 용버들, 양버들, 목련, 아까시나무, 은사시나무, 중국단풍, 귀룽나무, 구상나무, 무궁화, 라일락, 사철나무, 눈향나무 등
- 미군부대 근무자 및 지역주민 탐문조사를 통해 나무에 담긴 추억과 상호관계성을 파악하여 공원 콘텐츠로 활용

49

2. 기후위기 대응 및 폭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 자연기반해법 (Nature-based solution)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 하여,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응
- 도심에서 찬공기를 보완 생성하고 확산하는 바람길숲(확산숲) 조성
- 도심 탄소중립숲 조성
- 시민참여형 숲 조성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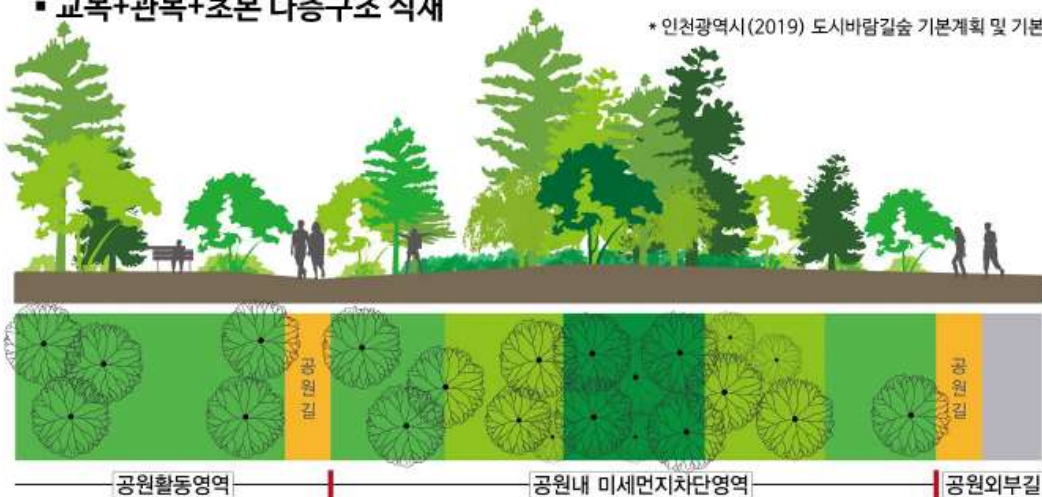
*출처: 인천광역시(2019) 도시바람길숲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50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조성 모델>

- 도심에서 찬공기를 보완 생성하고 확산하는 숲
 - : 대기정화 폭염저감 기능숲 조성, 찬공기 유동 및 대기순환 특화숲 조성
- 필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녹지 안쪽으로 수관용적이 큰 나무를 밀식
- 교목+관목+초본 다층구조 식재

* 인천광역시(2019) 도시바람길숲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3.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물서식처 조성 및 연계

- 부평공원, 부영공원과 연계하여 생태축 및 생물서식처 연결
 - 큰나무 수림대 연결, 먹이식물 및 은신처 조성
 - 야생조류, 곤충류, 양서류 목표종을 선정하여 서식처 연계방안 도모
- 다양한 생물의 서식을 유도하는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조성
 - 생태연못, 야생풀밭, 생태숲, 모래 및 자갈 등 다양한 서식공간 제공
 - 야생조류 서식 및 유도를 위한 인공둥지 상자, 목욕터 및 조류피더 설치
- 군용철도 녹화사업 및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연계
 - 선형의 숲길 및 물길과 연계하여 생물 이동기능 증진 도모

52



토론1. 광경전(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부평미군부대의 흔적

부평미군부대라고 불리웠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전이었다. 현재는 부평미군부대라고 불리우기 보다는 캠프마켓이라 불리운다.

1997년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가 창립되었는데, 당시에는 캠프마켓이라고 불리우기 보다는 부평미군부대 또는 부평미군기지였다.

이렇게 불리웠던 가장 큰 이유가 은연 중 작용되었던 역사의식으로 보인다. 외국군부대 명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역사의식이 작용되어 부평미군부대 또는 부평미군기지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조병창 공간에 광복 이후 진주한 미군이 잠시 주둔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군위수병원이 주둔했다. 이후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잠시 북한 인민군이 인천지역을 점령했을 때, 부평 조병창 공간을 인민군이 주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미군이 재 주둔했던 시기 조병창 건축물의 지붕이 폭격을 맞았던 것으로 보여진 것은 주둔한 인민군에 대한 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미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공격에 의해 벌어진 상황인지가 확실치 않다.

클럽과 락음악, 한국의 대중음악

미국은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군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원부대를 설치했는데 애스컴시티였다.

애스컴시티에는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었다.

미군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전쟁의 재발과 공포속에서 탈출구가 필요했다. 이때 미군들의 필요시설 중 하나가 클럽이었고, 클럽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었다.

이처럼 필요에 의한 클럽에는 한국의 음악가들이 생존을 위해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미군들이 원했던 락음악과 재즈 등을 연주했다.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락음악의 연주들은 이후 한국사회 내부에 미국의 대중음악을 이식시켜 주었다.

부평 인민군 반공포로수용소, 그리고 비극

현재의 부영공원(당시 캠프 하이에스)에 인민군 포로수용소가 존재했었다. 반공포로들이 수용되었는데, 웬만한 노동 등은 감시의 강도가 상당히 낮춰진 형태로 진행되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포로수용소의 건물들 내부의 관리자들은 주로 한국 헌병들이었고, 외곽은 미군들이 책임관리였다.

부평 포로수용소에서도 헌병들이 내부를 책임지고, 외곽의 경비는 미군이 책임졌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 포로수용소의 반공포로들을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에 헌병들이 포로의 문을 열어 주었다. 반공포로들은 담요들을 이용해서 철조망을 무너트리고 탈출했다. 물론 탈출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의 초병들이 사격을 했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월 18일 전국의 반공포로들이 탈출했는데, 유독 부평 포로수용소의 반공포로들이 탈출하지 못했다. 내부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던 한국군 헌병대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끝내 탈출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때 외곽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군들은 비상이 걸린 상태여서 소총뿐만 아니라 기관총까지 동원해서 외곽 경비초소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

결국 6월 19일 부평의 포로수용소 관리의 헌병대장이 탈출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다. 탈출하기 시작한 반공포로들이 담요들을 던져 철조망을 무너트리며 탈출하기 시작했으나 하루 늦은 결과로 소총과 기관총들의 총탄에 의해 42명(부상자들 중 2명이 추가 사망)이 사망했다.

결국 1,450명 가량의 반공포로가 있었으나 탈출에 성공한 반공포로들은 500여명만이 가능했다. 다수의 부상자와 사망자, 탈출하지 않은 포로들이 대략 900명 전후였다.

토론2. 이복임(부평 산곡2동 주민)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주민들도 들어갈 수 없었던 부평미군기지가 일부이지만 드디어 반환되었고 토양오염정화를 마치면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기쁜 마음입니다.

부평은 인천에서도 큰 도시인만큼 부평미군기지 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습니다.

우선 가족들이 쉴 수 편안한 공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어 공연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평지하상가 소상공인들도 있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복합쇼핑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고개로도 개통도 필요하고, 장고개도로를 만들면서 복개된 산곡천을 복원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부평미군기지 공원 조성할 때에 산곡천을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건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각기 다릅니다. 어떤 주민들은 전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주민들은 일부는 남겨야 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저는 이 또한 역사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남겨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잘 모아져서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토론3.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토론4. 류윤기(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장)